

# 이란의 石油産業동향

**최** 근 이란 經濟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가경제의 기둥이 되고 있는 石油수출이 이라크에 의한 석유출하금지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과 세계 石油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란은 「전쟁과 개발」이라는 경제노선에서 통제를 강화한 「戰時 긴축형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난국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 石油의존형 경제체제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작은섬 하르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르그 섬은 대 산유국인 이란의 최대 石油수출기지로서 이른바 이란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철벽 방어태세를 갖춘 곳으로 알려진 이 섬이 이라크 공군기에 의해 본격적으로 폭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15일로 그 이후 2개월여 사이에 25회 이상이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섬에서의 石油출하 동향은 이란경제 뿐만 아니라, 이란·이라크 전쟁과 세계 석유시장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라크 공군기의 파상공격으로 하르그는 한때, 폐쇄 직전에 있었으나 현재는 동쪽의 T잔교 일부를 사용하여 石油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한때 100만B/D를 밀들었던 이 섬에서의 石油수출 능력은 160만B/D까지 회복된 것으로 석유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시리 섬이나 라반 섬에서 20만B/D의 석유수출이 가능하지만, 하르그섬의 기능 저하에 의한 타격은 매우 크다. 石油수출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이란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온

다. 지금까지 石油의존 경제를 실질적으로 탈피하지 못한 이 나라의 숙명인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 다른 연안 산유국에 비해 공업화가 진전되고 다양화된 산업기반을 갖추었다고 해도 外貨수입의 약 97%, 국가재정의 약 절반 이상을 石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 租稅·非石油제품수출의 확대

이란의 石油수출은 여러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것은 이라크에 의한 하르그 섬 공격등 직접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석유시장의 침체, 수출환경의 악화 등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그럴때마다 이란은 할인판매라는 OPEC내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연한 판매전략으로 평균 160만B/D 정도의 수출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84년도의 石油收入은 당초계획 약 200억달러를 밑돌아 170억 달러에 머물렀다. 85년도에는 이 보다 훨씬 밑돌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란은 혁명 이후 경제의 자립화, 석유의존형 경제에서의 탈피를 겨냥해 왔다. 83년도부터 시작된 새 5개년 계획은 그 구체화의 일보였다. 그러나, 石油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산업진흥과 공업화도 어쩔 수 없이 石油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이라크와의 전쟁수행도 석유수입의 안정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금년초, 85년도 예산심의시에 일부 의원이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 石油를 보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수뇌는 『우리는 이슬람의 큰뜻과 혁명을 완수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비상시에 귀중한 石油자원

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할 수 있는가』라며 반박하였다. 물론 이란 정부도 국가재정과 외화수입에서 차지하는 石油비중의 크기를 인식하고, 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적은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세제체제의 개혁에 나서는 한편, 非石油製品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증세의 대상이 된 상인, 자영업자들은 종교계의 보수파와 함께 이에 저항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광물자원등 非石油제품의 수출은 최근 1~2년동안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불과 약 4억달러로 석유수출 수입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 이란·이라크戰爭과 戰費조달

석유수출이 100만B/D 전후로 저조하면 연간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武器구입이나 안정된 국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자 확보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란은 하르그섬의 복구를 서두르고, 그 기능을 대체할 별개의 석유 출하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반다르 가나베 연안 등에 간이 출하기지를 건설하려는 것도 그 대책의 하나이다. 아울러 가나베에서 동부 오만海에 면한 자스크, 차바하르까지 연결하는 전략 파이프라인의 구상이나 그 보조도로의 건설계획도 부상하고 있다. 석유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란 정부는 석유출하 기지시설의 건설 관련공사를 우선하여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다.

### 中央銀行의 국제수지개선 역할

한편, 이란 중앙은행은 『식량, 의약품, 그리고 일부 공업원료 등 극히 한정된 중요기밀 물자 이외의 신용장(L/C) 개설을 대폭 규제 강화하고 나섰다』고 금융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石油수출의 감소로 35억달러로 추산되는 외화준비금이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조선 공격이 격화된 84년 5월의 페르샤만 위기등, 石油수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중앙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규제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이 美国에 의한 경제 봉쇄 등 수많은 시련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중앙은행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잦은 수입규제로 이란의 수입량은 대폭 줄어들어 85년초 4개월간의 수입통관 실적 수량 베이스로 전년동기비 30% 이상이나 줄

어 들었다. 이러한 수입감소가 이란의 경제, 산업활동에 끼친 영향은 크다. 中東에서도 유수의 공업국인 이란이지만, 섬유, 자동차 산업 등은 원자재,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달부족분은 그대로 국내 각 산업의 가동을 저하로 이어진다. 사실상 이미 생산공장에서는 원자재 부족사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經濟자립과 개발계획의 한계

이란은 경제자립을 위해 자동차, 건설기계, 산업기계등 기간산업의 국산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일반 자동차, 소형트럭의 국산화를 위해 日本 자동차 회사와의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이미 유럽, 日本의 합작선이 선정된 부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국산화 계획이 예정보다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래의 石油수출 수입에 대한 불안은 개발 계획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란은 83년도부터 의욕적인 새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는 대형화력 발전소, 철도, 도로수송망, 새공항 건설 등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나, 연간 평균 약 240억달러의 석유수익과 5년간 약 1천5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개발 투자액을 상정한 계획에 대해서 일부 지도층에서는 『예산상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점차 현실감을 잃고 있다.

금년도 이란의 국가예산은 총 3조 8천750억 리알(1\$ = 92.05Rial)로 대략 전년도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마이너스이다. 그중에서도 개발 지출은 전년도대비 4.2% 감소한 1조 1천 360억리알로 억제하고 있다. 더우기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쟁관련 경비는 거의 삭감할 수 없는 이상 실행단계에서 개발 관련 지출을 더욱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중에서도 石油관련 부문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 전쟁 수행상 우선도가 높은 것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수행과 국가개발」이라는 경제노선을 추진해온 이란은 지금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戰時긴축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外債 상환 개선

이란은 혁명 이후 150억달러 정도에 달하는 대외 채무를 거의 상환, 현재는 불과 수억달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신규 대외차입도 피해 왔다. 이 점에서 약 400억 달러나 되는 외채를 안고 외채상환을 연기하여 절박한 위기를 넘기려는 이라크와는 대조적이다. 앞으로 외채절감을

살려 자국경제의 축소균형을 추진하면서 관리·통제의 강화로 재정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경제에 의해 물자부족, 인플레이, 실업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안겨줄 것인가? 이란 경제의 향방은 혁명정권의 운명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日本經濟新聞 10/16〉

□ 海外石油市場동향 □

사우디, 市場連繫가격으로 對日 原油판매협상

사우디 아라비아는 몇몇 日本顧客들과 사우디産 原油를 公式價 이하로 할인 판매하는 문제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및 美国 업계소식통들은 사우디가 自國의 東南亞 해상비축 原油를 현물가격으로 日本에 판매하는 문제에 관한 협상을 현재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사우디의 비축원유가 내년 1월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사우디는 日本고객들과 사우디産 原油를 최근 사우디가 일부 서방 석유사들에게 협의한 가격으로 日本에 할인판매하는 長期契約協商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와 日本石油회사들 간의 계약은 대부분 금년말에 만료되는데, 사우디는 소위 네트백 契約에 있어 日本 石油회사들을 제외시켰다.

日本の 한 主要石油社 관계자는 사우디가 최근 極東지역과의 石油去來 태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다른 한 소식통은 사우디와의 할인판매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사우디의 對日 스파트판매협상은 사우디 정부통제하에 주로 대외 石油판매를 맡고 있는 Norbec社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Norbec는 東南亞 브루나이 海上에 Arab Light, Arab, Medium, Arab, Heavy 原油를 비축해 놓고 있다.

美国의 한 石油社 관계자는 Norbec이 日本

會社들에게 그들과의 협상은 사우디 정부에 전달된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Norbec에게 公式價 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의 판매협상권한을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주요 油種인 Arab, Light의 12월 船積分現物市場 가격은 公式價(28\$/B)를 약간 밑도는 27.85~27.95\$/B이며, 현재 사우디의 산유량은 18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500萬b/d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와 네트백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다른 고객들은 사우디産 原油구매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日本의 사우디産 原油수입은 작년의 경우 75~80% 수준이며, 싱가포르 주요 精製센타에서의 사우디産 原油사용도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業界 관계자들은 Norbec이 公式價 이하 판매를 시사했지만, 할인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면서 日本側의 구매물량은 80萬b/d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日本고객들이 Norbec에 아시아 현물시장가격 수준, 유전스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 수송중 상실분 補償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할인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관계자들은 日本의 石油製品 가격이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지적 네트백 판매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장연계 판매가격의 적용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